

버려야 할 관행, 채택료

교재선정 과정에서 출판사나 서점이 담당교사나 교수에게 건네주는 '채택료' 명목의 돈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출판계와 교육계가 채택료 근절을 위해 진지한 반성과 함께 성명서를 내는 등 자정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런데 얼마전 출판·서점계의 간담회장에서 마주친 한 지방서점주인은 사그라진 줄 알았던 부조리의 불씨가 여전히 뿌터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전한다. 그의 얘기대로라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채택료가 출판산업계와 상아탑 사이에서 암암리에 오고간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도서정가의 50%가 넘는 예도 있다.

채택료와 같이 공개되지 않는 '거래액'이 얼마나 하는 것은 일단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교재선정 과정에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제는 보다 나은 양질의 책을 생산하고 품질로서 경쟁에 나서는 정당한 상거래는 제쳐두고 뒷돈으로 이익을 챙겨보려는 일부 출판사와, 좀더 유익한 교재를 선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부 교육자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밧기' 때문이다. 이것은 편법이 우선되고 마치 그것이 무슨 왕도인양 믿고 있는 우리사회의 함몰된 도덕성에서 연유

된 것이다.

하지만 문화산업이라는 '간판'과 신성함이라는 '금줄'을 친 출판·서점계와 교육계에서조차 이런 식의 뒷거래가 아무런 반성없이 계속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물론 영업상의 애교섞인 '윤희유' 정도라든가, 동양적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채택료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높아지고 의례껏 채택료가 있어야 거래가 성립된다는 뒤통수, 바른 길을 놔두고 길이 아닌 곳으로 모두가 몰릴 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남들이 모두 주고받으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합리화 논리에 빠지거나, 편법이 편하다는 식의 변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싸잡아 욕할 일도 아니다. 진정으로 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고 다루어야 한다. 버려야 될 관행은 일찍 버리는 게 좋은 것이다. — 최태원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87호 / 1991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允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旻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寧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珍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林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饒鍾夏 | 安秉永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瓊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暉 | 李萬烈 | 李炳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腹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秉鍾 | 鄭雲瑛 | 鄭晉錫 |
| 鄭鍾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賢 | 韓勝憲 | 許順烈 | 洪廷善 |
| 黃鉉源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만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까지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으십시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 이야기

올 상반기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수위를 차지한 「배꼽」의 저자 오쇼 라즈니쉬의 또다른 책 「내가 사랑한 책」이 최근 류시화씨의 번역으로 동광출판사에서 상재됐다.

라즈니쉬가 읽은 '십만권이 넘는' 책 가운데 150권을 가려 뽑아, 자신이 그 책들을 통해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내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 수 있었는가를 제자인 기트 바르티에게 친근한 이야기로 들려주는 이 책은 한 명상가의 비밀스런 서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흥미를 끈다.

라즈니쉬의 기억의 서가 속에 꽃힌 책의 대부분은 이른바 동서고금의 신비서들이나, 개중에는 우리들에게 이미 친숙해 있는 것도 결코 적지 않다. '깨달음에 다다른' '성자' 라즈니쉬는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국내 독자들에게도 낯익은 목록들을 중심으로 발췌, 소개한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책을 전혀 쓰지 않았다 해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쓴 것만으로도 니체는 인류에게 무한한 공헌을 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값진 작업을 했다. 인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짜라투스트라를 발굴한 것이다. 짜라투스트라를 재등장시키고 그에게 불후의 생명과 부활을 준 자가 바로 니체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앞으로 미래의 성서가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플라톤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다. 그는 평범한 철학자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실로 가치있는 책이며, 그것을 빼놓아선 안된다.

▲코란

나는 아라비아어를 모르지만 「코란」만큼은 이해한다. 그 리듬을, 그 리듬의 아름다움을, 아랍어의 그 사운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한 송이 꽃을 볼 때 "이 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묻는가? 꽃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것의 아름다움이 곧 그것의 의미이다. 바로 그 '의미없음'이 의미이다. (...)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를 초월해 있고, 가장 중요한 책, 그러면서도 인류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논리적인 이 책 「코란」이여!

▲혁명가를 위한 격언

버나드 쇼의 「혁명가를 위한 격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세상에 황금불이란 없다. 이것이 첫번째 황금불이다." 그렇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된다. 절대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절대진리다. 그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것은 곧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는 뜻이다. 그냥 읽으라고 할 때는 명상이 필요없다.

▲싯달타

헤르만 헤세는 깨달음에 도달한

자가 아니었다. 평범한 인간존재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적인 표현능력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인 「싯달타」를 쓸 수 있었다. (...) 헤르만 헤세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헤세 자신은 '싯타'가 되지 못했다. 여전히 한 보잘것 없는 작가였다. 물론 노벨상을 수상하긴 했으나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진 않는다.

▲존재와 무

장 폴 사르트르는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철학적인 말장난, 지적인 혼란을 즐겼다. 사실이 책은 훌륭한 지적 혼란이 된다. 「존재와 무」의 10페이지라도 읽을 수 있다면 그대는 미치지, 아니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이 책은 읽기가 힘들다. (...) 사르트르는 금세기의 대표적인 속물근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그를 속물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 그가 실존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실존주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과 존재

하이데거의 이 책은 정말로 읽기 힘든 책이다. 책을 읽노라면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몇군데 반짝이는 귀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누군가 그대의 머리를 망치로 치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것과 같다. 몇

개의 별들이 군데군데 반짝인다.

▲아웃사이더

금세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이 「아웃사이더」이다. 그러나 콜린 윌슨 자신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는 단지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자일 뿐이다. 콜린 윌슨으로 말하자면 그는 아웃사이더가 아니었다. 그는 세속적인 인간이었다. 아웃사이더란 바로 나같은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자 자신은 자기가 말하는 차원에 올라서지 못했지만 그래도 진리에 아주 가깝게 접근했다. 그러나 이 점을 기억하라. 진리에 아무리 가깝게 접근했다 해도 가깝다는 것은 아직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진리이거나 진리가 아니거나 둘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 중간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론

인류역사상 가장 해로운 책이 이 책이다. 그러나 수천만의 사람을 지배했으니 어떤 면에서 이 책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 칼 마르크스는 전혀 경제학자가 아니라 몽상가였을 뿐이다. 꿈꾸는 자, 시인이었다. 그것도 3류시인이었다. 그는 훌륭한 작가도 되지 못했다. 아무도 「자본론」을 읽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읽지 말라는 뜻에서다. 이 말에 밑줄을 그어라. 이 책을 읽지 말라! 세상에 읽어야 할 책이 너무도 많다. 「자본론」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